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 기초한 상담 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ounseling Research Methods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박안나 (Anna Park)**

김 준 (Jun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a research methodology suitable for Christian counseling research that presupposes a Christian worldview.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view and research method, which is the basis of the counseling research method, research methodology is worldview-dependent. In addition, the content of the Christian worldview was reviewed in terms of ontology, epistemology, and value theory. From a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an individual's life can be the subject of scientific study as a contextual case in the great story of the kingdom of God. Among the scientific methods of analyzing cases, the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at positivism presupposes does not correspond to the Christian worldview, and constructivism is consistent with the epistemological aspect. Critical realism, which resolves ontological conflicts, is the perspective that narrows the distance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in terms of ontology and epistemology. Therefore, the case studies emphasized from this point of view are suitable for research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and science and communication are also emphasized. Through this study,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wakens the importance of worldview in research and that case studies provide a valid basis for Christian worldview-based research.

Key words: counseling research, research methodology, worldview, Critical Realism, case study

* 2022년 2월 11일 접수, 3월 10일 최종수정, 3월 11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총신대학교 박안나의 박사학위논문(2021년 2월, 지도교수:김준)의 일부를 요약 및 재구성한 논문임

** 헤세드 상담센터(Hessed Counseling Center) 실장,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annapark236@gmail.com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교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촌로 110, junkim24@gmail.com

1. 여는 글

1949년 미국 Boulder에서 개최된 임상심리학 대학원 교육에 관한 회의(Boulder Conference on Graduate Education in Clinical Psychology)에서 이루어진 심리치료분야의 주요 합의를 “과학자-실무자 모델”이라고 부른다. 모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회의는 심리치료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를 입증해 나가야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안현의, 2003).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때 과학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과학적 방법이란 현상들 간의 관계를 논리와 수리로 표현하는 양적 개념을 의미한다. 실증적 성격의 과학은 근대 이후로 지배적인 사상이 되어 지금까지 학문 영역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준이 되었고, 심리치료 분야도 ‘사회 과학’으로 분류되었다.

심리상담 영역에 과학의 영향력이 파고들면서 무엇을 ‘과학’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안현의, 2003). 국내에서는 박성희(1996)가 과학이라는 ‘인정된 관점’과 대비되는 ‘대안적 관점’의 상담 연구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고, 이장호, 김정옥(1998)은 다양한 패러다임으로의 확장성을 주장하면서도 ‘인정된 관점’의 상담 연구 방법 또한 더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후 상담 연구 주제인 인간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는 양적 연구 방법이 한계가 있거나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이 등장함에 따라 질적 연구 방법론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이장호, 김정옥, 1998; 안현의, 2003)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질적 연구가 상담 연구 방법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게 되었다(박성희, 1996; 박승민, 2012; 권정인, 양정연, 2013). 그러나 양적 연구는 그 수와 영향력 면에서 여전히 상담 연구 영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조성호, 2003;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 상담 연구자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상담 연구 주제를 고유하게 탐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상담 과정만의 특성을 내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접근하는 연구 방법이 상담학 자체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박성희, 1996; 이장호, 김정옥, 1998; 안현의, 2003) 기독교 상담 연구자 또한 기독교 상담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론을 찾아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런데 상담 연구 방법은 결국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보는가라는 인간관, 더 나아가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관에 의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이장호, 김정옥, 1998)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기독교 상담 연구자에게는 보다 엄중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과학은 무엇을 진리로 보느냐와 그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와 관련이 있으며,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에 따라 찾고자 하는 진리도, 진리 발견의 과정과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안현의, 2003). 진리는 참된 이치, 최고의 이념이며(박은진, 1998),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진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며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김영한, 2006). 따라서 과학적 방법만이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사회 과학 분야에서도 경도된 상황에서(강상우, 2007) 기독교 상담 연구자가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상담 연구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산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기독교 상담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 상담자가 연구자로서 상담 연구 방법론을 정할 때 기초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세계관과 연구 방법론의 관계를 설명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살펴본 후, 기독교 세계관으로부터 연구 방법론이 연결 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 방법론, 그 중에서 사례 연구와 연결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보자고 한다.

II. 펴는 글

1. 패러다임과 연구 방법

앞에서 사용한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세계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체계로, 모든 사람은 인식하건 그렇지 않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 또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는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 자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연구 문제의 개념화부터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에 이르기까지 전 연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Creswell, 2015). 따라서 연구 방법론의 시작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철, 2010).

세계관은 연구 영역에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설명되어 왔다(Greene, 2000).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Thomas Kuhn)이 그의 저서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과학 연구 모델의 기반이 되는 관점을 지칭한 것으로 과학 연구 방법론의 근간이 되는 ‘철학적 가정’을 의미한다(이영철, 2010). 앞에서 과학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에 따라 찾고자 하는 진리도 다르고 진리 발견의 과정과 방법도 다르다고 한 것은 이 철학적 가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안현의, 2003).

패러다임의 철학적 가정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그리고 이에 세 가지에 따라 도출되는 방법론까지, 총 네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존재론은 ‘실재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을 하며, 인식론은 ‘무엇이 지식으로 간주 되는가’에 대하여, 가치론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이론이며(Creswell, 2015; 이정빈, 2018), 이 네 개의 축들은 존

재론으로부터 시작해 인과의 논리로 인식론과 가치론 순으로 이어지고 여기까지 형성된 전제에 따라 연구 방법론이 형성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역사에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을 지배한 것은 ‘과학’이라는 패러다임이었다. 이 패러다임은 존재론적으로는 실재를 우리 자신 너머, 저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해 사실상 확실한 실재, 진리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실재를 이해하거나 실재에 도달할 수 없고 다만 연구와 통계를 통해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인식론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런 전제에 따라 연구자의 가치 편향은 통제되어야 하고 연구에 표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에 대한 역할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논리적 고리에 따라 실증적인 양적 자료로부터 얻어진 인과적인 진술만이 참된 지식이라는 사조가 주류가 되었고 그 영향은 사회 과학 연구 영역에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을 탐구하는 사회 과학 영역에서는 수학적 양적 분석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상담학에서는 인간의 구체적 경험과 주관적 의미를 중시하고 인간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제안되면서 최근 수십 년 사이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들이 개발되었다(박성희, 1996; 이남인, 2014). 새로운 연구 방법이 주장되는 것은 결국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적 관점, 즉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했기 때문이며 결국 다른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에 기인한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실재가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존재론), 따라서 연구자와 피연구자가 함께 만들어가며 알게 되고(인식론), 이에 따라 개인적 가치가 존중되고 지식이 연구자와의 관점과 참여자의 관점 모두 반영하는 방식 때문에 가치가 논의된다고 본다(가치론). 이와 같이 사회 과학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당위성과 연구 단계의 논리적 고리는 철학적 가정인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방법론에는 연구자의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난다(전미양, 문현경, 2017).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세상이 어떠한다고 믿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할 수 있다(신국원, 2005; 주만성, 2011). 연구자가 믿고 있는 것이 그대로 연구에 반영되는 된다고 할 때 기독교 상담자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을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 요구된다.

1) 패러다임으로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상담 연구자가 전제하는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다. 앞에서 패러다임의 축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방법론이라고 하였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인 면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인 계몽주의나 과학기술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고유의 관

점이 있다(김영한, 2006).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제공하는 존재 인식과 진리와 지식에 관한 생각, 세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치와 규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신국원, 2005). 따라서 성경이 제공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을 차례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존재론

세계에 실제로 어떤 실재가 존재하는가(이기홍, 2014) 또는 실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은 먼저 창조주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며 답을 한다. 창조주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과 인간을 자신 '밖으로' 창조하셨다(주만성, 2011). 피조물인 모든 만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존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행 17: 28; Greene, 2000).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그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질서'가 존재한다(이태희, 2016). 이는 '목적'과 '질서'가 창조주의 존재와 함께 성경적 존재론의 핵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목적과 질서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존재의 '목적'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즉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의도에 조화롭게 되었고 그렇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주만성, 2011).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것이 그 목적이며 가장 가치 있다. 이 목적과 가치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결국 세상은 이유 없이 저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장으로 존재하며 모든 역사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다(주만성, 2011).

다음으로 '질서'를 살펴보자.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독자적인 실재를 부여하시고 피조물에게 권력을 위임하셔서 통치하시는데, 이것이 '질서'이다. 성경은 이런 자연의 질서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시19: 2; 전도서 3장), 하나님의 통치로 만물은 질서를 따라 유지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이 어떤 비인격적인 기계적 원인에 의해 움직여지는 메커니즘, 또는 비인격적인 원칙이 세상에 합리적 질서를 부여한다는 세계관을 거부한다(주만성, 2011).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지배하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로 그가 부여하신 '질서'에 따라 존재되고 유지되는 방식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존재론이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실재하며 그 본질은 존재한다. 그

실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인식론과 연결되는데, 이를 위해서 인간 창조의 독특성을 존재론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은 신적인 협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 존재로서의 삶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김광열, 2017). 바빙크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위로부터’ 생명의 숨을 받아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사유하고, 말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의 지식, 언어, 종교성 등은 근대 과학의 세계관이 말하듯 긴 진화의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에게 깃들어 있는 것이며 인간 존재 자체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조성국, 2017).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 다양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위치적으로도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놓인 독특한 존재, 또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맡아 돌보게 하신 존재다(신국원, 2005). 이러한 위임은 인간이 하나님이 피조계에 부여하신 질서를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서 행동해야하는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주만성, 2011). 즉, ‘앎’과 ‘의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안다’는 ‘인간이 안다’고 말할 때와 같은 의미를 말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 인간은 제한된 것만 안다.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참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지식의 정도가 하나님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Erickson, 2001).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론적 특이성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와 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 근거해 인식론으로 연결된다(주만성, 2011).

(2) 인식론

‘지식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이기홍, 2014)라는 인식론적 질문에 대하여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계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진리를 보여주시는 행위이다(박형룡, 2002). 예를 들어,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와 같은 것은 다른 피조물과 의논하거나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아니며 계시 외에는 답을 얻을 수 없다(신국원, 2005).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지식을 전달하신다는 신관(神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지식을 알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존재론과 연결되어 있다(박

형룡, 2002).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 바빙크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절반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빛을 지으시면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지으셨다’라고 했다(박윤선, 1984). 이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인격적이신 성품과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념은 자연이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계시라고 한다(박형룡, 2002).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은 창조 뿐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구속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죄 없는 상태로 지음 받았으나 불신과 교만으로 죄에 몰들어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 값을 치러야 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음을 잘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구속은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것, 즉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 본래 창조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길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계시해 주셨으며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해주신 구원의 길을 알게 된다.

결국 성경적 인식론은 존재론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아는 것,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분에 의해 통치되고 유지되고 있는 이 세상을 아는 것, 그 분의 목적과 질서, 그리고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이며, 이러한 창조성, 관계성, 인격성은 성경적 존재론과 인식론의 핵심이다.

(3) 가치론

가치론의 질문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이다. 가치란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좋음에 대한 표현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의미 있는 삶을 잘 살기 위해 형성된 선(善) 개념이다(이상형, 2015). 가치는 근본적으로 객관적이지만 각 개인들은 다양한 삶을 추구하기에 주관적으로 존재한다. 신본주의 시대에는 가치는 신에 의해서만 그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곧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근대가 시작하며 신이 사라진 곳에서 가치의 영역이 정당성의 원천을 잃어버리면서 가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갈등을 일으켰다(이상형, 2015). 철학사에서 선보인 다양한 사조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치론이 주장되어 그동안 등장한 다양한 가치론을 살펴보면 철학자의 수만큼의 다양한 가치론, 아니 철학자의 수보다도 더 많은 가치론이 피력되었다

(이남인, 2017). 단순히 가치의 기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치론의 기반인 존재론과 인식론이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며 최고선의 물음은 여전히 제기 되고 있다.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가치의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제공한다. 지금까지 논한 존재론과 인식론의 주어(主語)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가치 판단의 주권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절대자이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좋다’고 가치 판단을 하셨다. 이는 가치에 대해 두 가지를 가르쳐준다.

첫째, 피조계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함에 있어 하나님이 고수하시는 기준은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다(Erickson, 2001).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이시며, 의로우시기 때문에 가치의 절대 기준이 되신다. 그 하나님은 그의 ‘목적’에 합당한 것을 보고 ‘좋다’ 즉, 가치 있다고 하신다. 이 의미는 그 외의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으며, 가치 있는 것이란 하나님의 목적인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적극적으로 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 책임과 자유가 있다. 인간의 가치 평가는 그 기준을 하나님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신 것을 가치 있게 여겨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가치중립적 태도, 인간 중심적인 도덕적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거부한다(김영한, 2006; 정희영, 2014). 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존재론, 알 수 없다고 보는 인식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상대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이거나 불가지론적 태도가 아닌 창조주에 대한 신앙 안에서 세상에 대한 가치론적으로 접근을 한다(김영한, 2006). 즉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김영한, 2006).

이는 결국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사실적 시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세상이 어떤 곳이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Bartholomew & Goheen, 2011).

2) 기독교 세계관과 상담 연구 방법론

(1) ‘사례’로 연결되는 기독교 세계관과 상담학 연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방법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과 ‘인식론’의 입장으로부

터 규정된 ‘가치론’이 경험적 자료와 이론적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추론 양식들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세계관 의존적인 개념이다(이기홍, 2014; Lincoln & Denzin, 2014). 세계관 자체가 인식의 틀이며 인식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에서 세계관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패러다임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의 틀로 살펴보았으며, 이제 이것이 연구 방법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고찰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은 해당 분야에 적합해야하므로 먼저 상담 분야의 연구 방법론과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박성희, 1996).

관점이며 신념인 세계관을 추상적으로 여기기 쉽고 특히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의 교리처럼 비쳐 지곤 하지만 창조, 타락, 구속의 주제들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건이고 경험이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으로 품고 그들의 현재를 살았던 실제 이야기가 가득하다(신국원, 2014). 기독교 세계관은 과거 속에 있었던 사건 일 뿐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꿈꾸게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이며 현재에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아직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세계관을 전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경험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신국원, 2005). 이 말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의 삶은 저마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큰 이야기 안에 작은 이야기로 존재한다(Vanderstelt, 2017).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큰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끌어오게 되어있어 전도서 3장 1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에 대한 의식과 갈망, 자신이 어떤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관념을 주셔서 그것을 갈망하고 찾게 하셨다(Bartholomew & Goheen, 2011). 인간의 무능력과 부패가 개인의 삶을 개인만의 독립된 이야기로 착각하게 하지만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속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fact)이며, 실재(reality)이다. 그 큰 이야기란 바로 성경이며, 큰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즉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다(Bartholomew & Goheen, 2011; Vanderstelt, 2017).

연구란 과학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적 탐구활동이며(김성희, 2014) 상담학 연구는 인간의 인지, 정서 및 행동 특성이 가진 양적·질적 상태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고 예언하기 위해 과학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므로 ‘과학적 관찰로서의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찰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황재규, 2014). 연구패러다임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로 하는 상담학 연구는 연구 대상인 인간의 삶을 큰 이야기 속에 있는 작은 이야기로 규정하고 관찰한다. 그런데 과학적 연구는 대체로 분석적이라는 속성이 있어 대상이나 현상의 한 단면으로 시작한다(김계현, 2014). 한 단면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또 다른 단면, 또 다른 단면을 반복해서 관찰하면 어느 정도 그 대상이나 현상 전체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과학의 방법이며 아주 작은 현상에 대한 단면적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조금씩 이해의 각도를 다양화하고 이해의 폭과 깊이를 증가

시켜 나가는 전략이 과학자들의 전략이다.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숲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김계현, 2014). 이러한 과학 연구의 특성을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로 하는 상담학 연구에 적용하면 숲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로, 나무는 작은 이야기로서 인간의 삶으로 볼 수 있으며 숲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전제 아래 나무인 인간 또는 인간의 삶은 상담학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학 연구에서 어떠한 맥락에 놓여있는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복잡한 실체를 ‘사례’라고 하는데(이영철, 2009), 이미 큰 이야기 속에 있는 작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맥락이며, 인간의 삶은 그 맥락에 놓여있는 환경 속 실체이기 때문에 사례가 될 수 있다. 과학 연구에서 연구자는 그 실체를 분석하기 위해 어떠한 ‘경계’를 설정하여(Guba & Lincoln, 1981; Merriam, 1988)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로 만드는데 사례와 분석의 단위를 결정하는 일은 지금까지 논한 바와 같이 연구자의 철학적 경향에서 이해 영향을 받으며(Merriam, 1988)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하는 연구자 또한 연구 대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경계 설정을 통해 분석의 단위로 삼는다.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상담학 연구에서는 ‘인간의 삶의 단면’이 하나의 ‘사례’로서 연구 분석의 단위가 되며 상담학 연구는 사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주요 상담 연구 방법들이 어떠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사례를 관찰하고 분석했는지 살펴보자.

(2) 사례 분석의 연구 방법 패러다임

근대 역사에서 과학적 방법의 주된 흐름은 ‘실증주의’에서 ‘구성주의’로의 이동이다(Creswell, 2015; Guba & Lincoln, 1994). 실증주의는 현실세계가 실재한다는 존재론적 입장으로 실험과 관찰에 의한 객관주의적 인식론을 취하는데,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가설이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실재라고 보며 연구의 가치는 중립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양적 방법론의 조작과 통제, ‘진리는 중립적’이라는 가치론은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그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한계란, 인간과 삶을 양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면 양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질적 측면은 파악될 수 없고(이남인, 2014), 인간과 삶이 지니고 있는 그 만의 고유한 속성과 의미는 양으로 환원하면 그 고유한 속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이정빈, 2018).

이에 구바와 링컨(Guba & Lincoln)과 같은 학자들은 인간을 탐구하는 방식으로서 인간의 지향성, 자유의지, 결정력 등 인간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구성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박성희 1996).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저에는 세계관의 이동이 있다. 구성주의 관점의 존재론은 세상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세계로부터 기원하여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인식론도 인간의 주관성을 중시하는데,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인간의 경험을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질적 분석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Creswell, 2015).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질적 연구가 대두된 토대에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강조한 후설(Husserl)의 현상학이 있다(이정빈, 2018). 후설은 인간에게는 지향성, 즉 ‘대상을 향한 의식’이 있으므로 경험을 해석학적으로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e)을 하여 그 본질을 밝혀내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이남인, 2004). 이에 영향을 받은 질적 연구는 인간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생각, 느낌, 동기, 신념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 세계에 대한 탐구를 지향한다. 따라서 수와 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보다는 개인의 언어로 표현되고 보고되는 주관적 자료를 중시하는데, 연구 대상자 뿐 아니라 연구자의 관찰과 참여경험을 중시해 자료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연구자 또한 가치 있게 여긴다(박성희, 1996). 내적 지각, 반성, 해석 능력은 최첨단 실험장비도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 때문이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론들의 근간이 되는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기독교 세계관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먼저 실증주의는 존재론과 인식론 측면에서 전체는 부분들의 총합이라는 가정, 탐구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가정, 맥락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된 관찰의 독립성에 대한 가정, 직선적 인과성에 대한 가정 등이 인간을 탐구하는 방식으로서도 올바르지 않을 뿐 아니라 (박성희, 1996; Guba & Lincoln, 1994)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론과도 상치된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유기체적으로 속한 것이며, 비인격적인 기제가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재이므로 인간의 삶이나 인간에 대한 연구는 그 맥락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강상우(2012)는 양적 연구 방법의 경도는 계량화와 수치화, 탈가치화로 인해 영성이나 가치개입적인 유익한 도구들을 학문의 영역에서 추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계량화나 수량화가 불가능한 것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탈가치화를 내세우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또한 인식론과 방법론에서 신(神)과 진리의 개념을 배제하여 인간의 주관과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가치화해 상대적인 진실을 진리로 결론짓는다는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어긋난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맥락에서 인간을 연구 도구 그 자체로 본다는 점, 즉 실재를 아는데 인간의 지성과 통찰력을 인간의 고유한 속성으로 보고 분석에 활용한다는 점은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물론 존재론 측면에서는 구성주의도 기독교 세계관과 상치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과학 연구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은, 과학이 인간의 이성에만 집중해 이성이 대상으로 삼는 존재의 속성에 대한 측면, 즉 존재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으

로 ‘존재론을 복구하여 사회과학 방법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이영철, 2010)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3) 비판적 실재론으로 연결되는 기독교 세계관과 사례 연구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은 영국의 과학철학자인 로이 바스카(Roy Bhaskar)가 실증주의는 물론 구성주의도 ‘실재는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제시한 과학관, 패러다임이다(이영철, 2010). 과학 개념을 지배한 실증주의는 인간의 능력과 지식에 집중한 나머지 존재론의 논의를 경험주의적 인식론으로 대체해버렸다. 즉, 존재론에서 인식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에 기준을 잡고 존재론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바스카는 기존의 과학이 ‘우리의 지식이 가능한가’ 라는 인식론적인 질문에 빠져있는 것을 꼬집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 세계는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는가?”라고 주장하며 존재론이 우선적으로 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이영철, 2006). 그가 이에 대한 답으로 제안한 것이 비판적 실재론이다.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인 세계에 대한 분명한 철학적인 입장, 즉 존재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이영철, 2006), 실제로 존재하는 실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되,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성적인 판단을 활용하는 비판적 작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판적 실재론이라 불렀다(이영철, 2010).

바스카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재를 실재 영역(domain of real)으로 불렀고, 그 안의 일부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현실 영역(domain of actual)으로, 또 그 안에 경험되는 영역을 경험적 영역(domain of empirical)이라고 불렀다(Bhaskar, 1998). 이 세 개의 영역이 일치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 실험실밖에는 없으며 바스카는 이것을 인식론이 존재론을 규정하는 것이며 경험적 과학의 한계라고 보았다. 그에게 과학은 실재 영역의 기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경험적 영역이나 현실 영역의 현상이 실재 영역의 기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증을 하는 것이다.

앞에서 실증주의보다는 구성주의가 기독교 세계관과 인식론 면에서 일부 공유하는 점이 있다고 했는데 바스카는 구성주의의 인식론 역시 해석학 중심이어서 사실보다 관찰자의 시각을 중시하여 상대주의가 되기 쉬운 오류가 있음을, 다시 말하면 인식론에 빠져 존재론을 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마치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처럼 지적하며 세계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철학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영철, 2006; 이영철, 2010).

비판적 실재론은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유신론적 관점은 밝히지 않아 기독교 세계관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영철, 2009b).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실재’를 인간이 ‘실재’를 통해 불완전하게나마 개연적으로 파악가능하다는 관점이 기존의 실증주의적 패러다임보다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론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분명히 실재하는 것이나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으며, 인간이 밝혀냈든 그렇지 못했든 실재는 그 자체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사유 능력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유가 다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도, 다 진리와 무관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알게 되는 지식은 실재(reality)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진실(true)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은 인간이 그 실재를 다 안다고 보지 않으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직관과 통찰, 지각, 사유, 추론 등의 능력을 사용하여 실재를 알아가면서도 죄성으로 인해 그 앎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적 견해와(김영환, 2006) 맥을 같이 해 기존의 다른 패러다임보다 기독교 세계관의 거리를 좁힌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존재나 창조된 세계의 실재를 확신하면서도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기 때문이다(최태연, 2008).

비판적 실재론은 우리가 가진 세계에 대한 지식은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지식은 진실(true)이라기보다 실재(reality)에 가까워 질 수 있을 뿐이며, 그 지식 또한 경험 자료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론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이영철, 2006). 즉 경험 영역과 현실 영역에서 인과관계(casual mechanism)가 실재를 설명한다. 이는 현실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나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보는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인과관계를 밝혀 그 기제를 찾고 설명하는 일이며, 사태를 설명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개념에 가장 적절한 방법론이 제안되는데, 바로 ‘사례 연구’이다. 사례 연구는 현실적인 맥락 속에서 현재적인 현상을 탐구하는 경험적인 탐구로서, 조사 대상의 독특한 성질을 구체적이고 상세 하게 연구하는데 유용하며 대상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전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인간의 내면생활이나 사회적 욕구, 관심, 동기 또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존재, 집합적 행동의 실체를 문화적 사회적 배경 하에서 연구하려고 할 때 유용하다(이영철, 2006 재 인용).

이처럼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는 방법론의 차이를 가져온다. 실증주의가 설정한 과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보편적 혹은 경험적 일반화가 목적이 되고 이를 위한 과학적 정당화 논리를 찾게 되지만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을 취하게 되면 과학 연구의 목적은 경험적 일반화가 아닌 인과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미 실재가 있기 때문에 실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명으로서 찾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인과적 법칙은 사물의 본성, 경향성과 관련된 것으로 그 발생적 메카니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그 때 그 때 밝혀보아야 하는데, 사례 연구는 실재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가를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며 방법이다(이영철, 2006). 사례 연구는 단순히 현상에 대한 일반화나 예측 가능성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기존의 이론이 밝히지 못한 발생 기제를 밝히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론으로, 질적, 양적 방법을 모두 포함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법을 사용이 가능하다(이영철, 2006). 또한 현상을 특정맥락과 분리하지 않고 그 과정과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인과적 힘을 밝혀내어 실재하는 대상에 대해 기존의 과학보다 나은 지식을 제공하여 의미 있는 지식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방법이다(이영철, 2009).

수정된 객관주의적 입장인 비판적 실재론은 객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론, 인식론 면에서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례 연구는 기독교 상담 연구자가 취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사료된다. 특히 다양한 발생기제가 복합적인 조건 하에서 작용하는 사회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사례 연구는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도 계량적인 분석방법과 경험적인 일반화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인간 현상에 대해 존재론적 관점과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다 높은 적합성을 제공하기에 그 가치가 크다(이영철, 2006).

4) 성경적 관점의 연구와 과학의 소통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과 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여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해 있는 인간의 삶은 상담 연구를 위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인간 삶의 한 단면을 하나의 사례로 보는 관점은 기독교 세계관과 과학을 이어준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상담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한 이유이다. 상담 연구는 사회학 연구의 한 분야로 사회 과학에 해당된다. 엄밀히 말해 기독교 세계관은 ‘진리’ 그 자체이며 과학 이론 배경에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아니다. 진리는 인간이 과학이라고 부르는 방법에 의해 실재로부터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김광열,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패러다임 관점에서 논하여 기존의 과학 방법론 적용을 가늠하며 적합한 방법론을 고찰한 것은 바로 과학과의 ‘대화’, 즉 소통을 위해서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대의 실증주의를 통해 과학은 현대사에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 비록 큰이 과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것임을 지적했으나 이미 주류가 된 과학이 신앙의 영역을 배제해온 것은 사실이다(최태연, 2008). 물론 근대 이전에는 유신론적 과학(theistic science)가 가능했으며 현재에도 과학연구의 실제에서 성립될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이 과학에서 초자연적 존재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동안 과학의 위상과 역할은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과학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최태연, 2008).

이것은 연구 영역 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담 영역이 그러하다. 현대 심리학이 힘이 있는 것은 자격증과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제도화가 된 영향이 큰 것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다(Johnson, 2012).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상담학 역시 과학의 영역으로 발전되어 왔고 그 위상이 주도적이고 지배적이 되었다. 그러나 쿤이 지적했듯이 특정 패러다임이 지배적이 되는 것은 그 세계관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패러다임보다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기에 과학자 공동체가 모종의 합의를 하기 때문이다(이영철, 2010). 주도적인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 말이라도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는 태도의 중요성을, 기독교 상담이 일관되게 성경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함을 주장한 제이 아담스(Jay Adams)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는 성경적 상담 운동의 초기를 이끌며 상담이 성경 중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옳은 것이었으나, 인본주의에 기초한 심리학을 경계하는 과정에서 그의 배타적이고 전투적인 태도는 그의 주장 중 ‘옳은 내용’까지 덮어버리며 결국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후 다음 세대인 데이비드 포울리슨(David Powlison)과 에드워드 웰치(Edward Welch) 등이 다른 패러다임과 다양한 교류를 하는 노력을 통하여 성경적 상담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김준, 2016). 따라서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을 견지하면서도 과학과의 열린 대화를 추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과학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진리에 대한 설명을 ‘과학의 언어’로 하는 것이다. 이는 질적 연구가 이미 연구 방법론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은 양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개념을 빌려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론 지배적 패러다임의 언어를 따르다가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이 그들만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선점의 우위에 있는 패러다임의 절차를 어느 정도 따를 필요가 있다(조용환, 1999).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과학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과학 연구 방법론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연구자에게 필요한 자세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상담 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여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사례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으로 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이해를 제공하려는 연구에 용이하며, 연구자의 학문적 성향과 재량에 따라 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Creswell, 2015; Yin, 2016). 전략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속한 작은 이야기들인 사례의 다양한 현상들을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과정과 특징으로 분석하는 일은 기독교 상담 연구자가 과학과 소통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III. 닫는 글

상담 영역에서도, 기독 상담 영역에서도 사례 연구는 활발히 활용되는 연구 방법이다. 어쩌면 기독 상담 연구자 또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하여 사례 연구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이미 연구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패러다임, 세계관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패러다임은 절대적이거나 합리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진리를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소통을 통해 인정과 합의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필요하며(최태연, 2008), 기독교의 절대성이나 독특함을 이유로 고립되어서는 안 되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과학은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이미 ‘인정된’ 관점으로 자리 잡은 과학과 소통을 해야 과학과 더불어 과학을 넘어가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최태연, 2008).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해있는 작은 이야기로서의 인간의 삶을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과, 존재론과 인식론 측면에서 비판적 실재론에서 강조하는 사례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미 기독 상담 연구 영역에서 사례 연구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본 연구를 통해 기독 상담 연구자가 세계관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고, 또 사례 연구 선택의 타당성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된 연구 방법론의 선택과 더불어 과학과의 소통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사례 연구의 가치와 가능성이 기독 상담의 연구 주제들과 만나 얼마나 선용되고 발휘될 것인가는 기독 상담 연구자의 몫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에서 세계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독교 세계관 기반의 연구에서 사례 연구가 타당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특정 이론이 아닌 신학의 일부분을 근거로 하여 일반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 문헌

- Archer, M., Bhaskar, R., Collier, A., Lawson, T. & Norrie, A. (1998). *Critical Realism: Essential Readings*. Oxon: Routledge.
- Bhaskar, R. (2008). *A Realist Theory of Science*. Oxon: Routledge.
- Guba, E. & Y.S. Lincoln. (1994).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 강상우 (2012).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방법에 관한 소고. **신앙과 학문**. 17(1). 7-42.
- [Kang, S. W. (2012). Christian Social Welfare Research Methods - based on the theoretical approach -*Faith & Scholarship*, 17(1), 7-42.]
- 권경인·양정연 (2013). 상담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2000년~2012년). **상담학연구**. 14(6). 3871-3893.
- [Kwon, K. I. & Yang, J. Y. (2013). Trend Analysys of Qualitative Research on Counseling Psychology Area(2000~2012).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6, 3871-3893.]
- 김광남 역. (2016).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관**. Anderson, J. N. (2014). *What's your worldview*. 서울: 이레서원.
- [Kim, K. N. (2016). *What's your worldview*. Seoul: Jireh. Trans. Anderson, J. N. (2014). *What's your worldview*. IL: Crossway.]
- 김광열 (2017). **장로교 기본교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Kim, K. Y. (2017). *Basic Christian Doctrine*. Seoul: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김계원·정종진·권희영·이윤주·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Kim, K. W., Jeong, J. J., Kwon, H. Y., Lee, Y. J. & Kim, C. K. (2011).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0~2009).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3). 521-542.]
- 김계현·고홍월·권경인·김성희·김재철·김형수·서영석·이형국·탁진국·황재규 (2014).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총서 - 상담 연구 방법론**. 서울: 학지사.
- [Kim, K. H., Ko, H. W., Kwon, K. I., Kim, S. H., Kim, J. C., Kim, H. S., Seo, Y. S., Lee, H. K., Tak, J. K. & Hwang, J. K. (2014).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Series Counseling Research Methodology*. Seoul: Hakjisa.]
- 김영한 (2006). 기독교 세계관의 독특성 - 개혁주의 관점에서 - . **기독교철학**, 3, 9-49.

- [Kim, Y. H. (2006). The Distinctiveness of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 Philosophy*, 3, 9-49.]
- 김준 (2016). 미국 복음주의 내 성경적 상담의 확장과 '신칼빈주의'. *복음과 상담*, 24(1), 45-72.
- [Kim, J. (2016). The Expansion of Biblical Counseling in American Evangelicalism and 'New Calvinism'.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4(1). 45-72.]
- 김찬영 역 (2012).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 Johnson, E. L. (Ed.), Coe, H. J., Hall, T. W., Myers, D. G., Standton, L. J., Powlison, D. A., Roberts, R. C., Watson, P.J. (2010).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서울: 부흥과 개혁사.
- [Kim, C. Y. (2012).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Seoul: Reviel & Reformation Trans. Johnson, E. L. (Ed.), Coe, H. J., Hall, T. W., Myers, D. G., Standton, L. J., Powlison, D. A., Roberts, R. C., Watson, P. J. (2010).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IL: IVP Academic]
- 문현경·김혜진 (2021). 존재론과 인식론이 사회과학 연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국민연금 제도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0), 167-206.
- [Moon, H. Y. & Kim, H. J. (2021). Exploring the Practical Influence of Ontology and Epistemology on Social Science Research: With Focus on Research o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70), 167-206]
- 박성희(1996). 상담학 연구 방법론의 패러다임과 분석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1).201-235.
- [Park, S. H. (1996). The research paradigms and methodology of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8. No.1. 201-235.]
- 박승민 (2012). 상담학 분야의 질적 연구 경향 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상담학연구**. 13(2). 953-977.
- [Park, S. M. (2012). The Trends of Qualitative Research on Counseling Psychology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 2, 953-977.]
- 박은진 (1998). 진리와 과학의 성공, 그리고 과학기술의 문제. **철학**, 55, 261-279.
- [Park, E. J. (1998). Truth, the Success of Science, and the Problems of Techno-Sciences.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55, 261-279.]
- 박형룡 (2002). **교의신학 서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Park, H. Y. (2002). *Dogmatic Theology - Introduction*. Seoul: Reformed Faith Association.]
- 신경식·서아영·송민채 역. (2016). **사례연구방법**. Yin, R. K.(2016).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서울: 한경사.
- [Shin, K. S., Seo, A. Y. & Song, M. C.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eoul:

- Hankyunsa. Trans. Yin, R. K. (201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CA: SAGE.]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 쉽게 풀어 쓴 신국원의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경기: IVP.
- [Shin. K. W. (2005). *Nicodemus' Glasses - An easy to understand Christian worldview*. Kyungki: IVP.]
- 신국원 (2014).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 신국원의 꿈, 비전, 세계관 이야기**. 서울: 복있는 사람.
- [Shin. K. W. (2014). *What we are dreaming here and now - dream, vision, worldview*. Seoul: Bessed man.]
- 안현의 (2003).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61-475.
- [Ahn, H. N. (2003). A Discussion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Scientist-Practitioner Model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3). 461-475.]
- 윤종석 역. (2011). **세계관은 이야기다**. Bartholomew, C. G. & Goheen, M. W. (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경기: IVP
- [Yoon, J. S. (2011).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KyungKi: IVP. Trans Bartholomew, C. G. & Goheen, M. W. (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MI: Baker Academic.]
- 이기홍 (2014).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경기: 한울아카데미.
- [Lee. K. H. (2014).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Social Sciences- Critical Realism Approach*. KyungKi: Hanul Academy.]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경기: 한길사
- [Lee, N. I. (2014).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Studies*. KyungKi: Hangilsa.]
- 이남인 (2017). 본능적 지향성과 가치경험의 본성. **철학사상**(63), 63-95
- [Lee, N. I. (2017). Instinctive Intentionality and the Nature of Valuing - Toward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Value.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63), 63-95.]
- 이상형 (2015). 가치와 규범, 그 대립과 종합. **사회와 철학**(29), 273-302.
- [Lee, S. H. (2015). Werte und Normen, deren Auseinandersetzung und Synthese. *Korean Society for Social Philosophy*, (29), 273-302.]
- 이영철 (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 연구의 이론적 지위 -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국행정학보**, 40(1), 71-90.
- [Lee, Y. C. (2006). Theoretical Status of Case Studies in the Social - Sciences. *Korean Public*

-
- Administration Review*, 40(1), 71-90.]
- 이영철 (2009). 보다 나은 사례 연구: 논리와 예시. **정부학연구**, 15(1), 189-213.
- [Lee, Y. C. (2009). For the Better Case Study: Logic and an Illustration.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15(1), 189-213.]
- 이영철 (2010). 패러다임에서 실재로: 구성주의 과학관에서 실재론적 과학관으로. **정부학연구**, 16(1), 155-179.
- [Lee, Y. C. (2009). From Paradigm to Reality: From a constructivist view of science to a realist view of science.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16(1), 155-179.]
- 이장호·김정옥 (1998). 상담 연구 방법론의 확장. **심리학의 연구문제**. 5. 193-229.
- [Lee, J. H., Kim, J. W. (1998). Extension of Counseling Research Methodology. *Psychological Issues*. 5. 193-229.]
- 이정빈 (2018). **질적 연구 방법과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Lee, J. B. (2018).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Counseling Psychology*. Seoul: Hakjisa.]
- 장성은 역 (2017). **복음의 언어**. Venderstelt J. (2017). Gospel Fluency: speaking the truths of Jesus into the Everyday stuff of Life. 서울. 토기장이.
- [Chang, S. E. (2017). *Gospel Fluency: speaking the truths of Jesus into the Everyday stuff of Life*. Trans. Venderstelt J. (2017). *Gospel Fluency: speaking the truths of Jesus into the Everyday stuff of Life*. IL: Crossway.]
- 전미양·문현경 (2017). 사회과학연구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중요성: 주관적 웰빙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2), 31-57.
- [Jun, M. Y. & Moon, H. K.(2017). The Role of Theoretical Frameworks: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Ontology and Epistemology in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3(2), 31-57.]
- 조성국 (2017). 헤르만 바빙크(H. Bavinck)의 교육을 위한 성경심리학적 인간론. **성경과 신학**, 81, 51 - 82.
- [Joh, S. G. (2017). Herman Bavinck's Biblical Psychology for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81, 51-82.]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Cho, S. H. (2003).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1988-2003).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811-832.]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Cho, Y. H. (1999).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case*. Seoul: Kyoyookbook.]

-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15).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서울: 학지사.
- [Cho, H. S., Jeong, S. W., Kim, J. S. & Kwon, J. S. (2015).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주만성 (2011). 기독교 학문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참조점으로서의 창조 세계. **창조론오픈포럼**, 5(2), 48-62.
- [Choo. M. S. (2011). Christian World-view as a Biblical Paradigm for Christian Studies. *Open Forum for Creationists*, 5(2). 48-62.]
- 나용화·황규일 역. (2001). **조직신학 개론**, Erickson, M. J. (1992). *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서울: CLC.
- [Na. Y. H. & Hwang, K. I. (2001). *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Seoul: CLC, Trans. Erickson, M. J. (1992). *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MI: Baker Academic.]
- 최욱 역. (2014). **질적 연구 핸드북**. Denzin, N. K. & Lincoln Y. S. (2011).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Choi. W. (201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eoul: AcademyPress. Trans. Denzin, N. K. & Lincoln Y. S. (2011).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 최태연 (2008). 기독교와 과학철학. **창조론오픈포럼**, 2(1), 54-63.
- [Choi, T. Y. (2008). Christianity and Philosophy of Science. *Open Forum for Creationists*, 2(1). 54-63.]
- 허미화 역. (1998). **질적사례연구법**. Merriam, S. (1994).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서울: 양서원.
- [Hur, M. H. (199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Trans. Merriam. S. (1994).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CA: Jossey-Bass.]
- 현은자·정희영·황보영란 역. (2000). **알버트 그린 박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Greene, A. E.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서울: 도서출판CUP.
- [Hyun, E J., Chung, Y. & Hwangbo, Y. R. (2000).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Trans. Seoul: CUP Publications. Trans. Greene, A. E.(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CO: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 기초한 상담 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ounseling Research Methods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박안나 (헤세드 상담센터)

김 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하는 기독교 상담 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상담 연구 방법의 기초가 되는 세계관과 연구 방법의 관계를 이해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개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이야기 속에 맥락이 있는 사례로서 과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사례를 분석하는 과학의 방법 중 실증주의가 전제하는 철학적 관점은 기독교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으며 구성주의는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부합하는 점이 있다. 존재론적인 상충을 해결해주는 비판적 실재론은 존재론과 인식론 측면에서 기독교 세계관과의 거리를 가장 좁히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강조하는 사례 연구가 기독교 세계관 기반의 연구에 적합함을 주장하며 과학과 소통 또한 강조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에서 세계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독교 세계관 기반의 연구에서 사례 연구가 타당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상담 연구, 연구 방법론, 세계관, 비판적 실재론, 사례 연구